

참회 · 추구 · 희망

— 北島의 시 세계

金鍾碩*

〈 목 차 〉

1. 들어가며
2. 北島의 詩論과 시인에 관한 사유
3. 北島 시에 나타난 시간성
 - 1) '과거'의 시간성: 역사에 대한 反思와 參회의식
 - 2) 현재와 미래의 시간성
4. 나가며

1. 들어가며

우리가 北島¹⁾라는 이름을 들을 때 피상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노

*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研究員

- 1) 北島(1949-) : 중국 신시기를 대표하는 당대 시인·소설가. 1949년 북경에서 직업 간부인 아버지와 의사인 어머니 사이의 삼형제 중 맏이로 태어났다. 천주교 가정에서 종교적인 분위기와 비교적 여유와 법도를 지닌 교육에 힘입어 순탄한 소년 시절을 보냈다. 당시 중국 제일의 명문인 북경 제4중학에 재학중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홍위병에 참여했다. 1969년 하북의 농촌으로 강제 의무 노동으로 가고, 같은 해 북경으로 돌아와 어느 건축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한다. 이러한 경험은 당시 젊은이들이 가졌던 이상주의의 맹목적 추구로부터 그의 눈을 뜨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훗날 문학이 도시적인 시인으로 성장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나, 이시기의 작품들은 실전되고, 그의 본격적인 문학활동은 1976년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벌어진 시가혁명에 참가할 때부터 시작된다. 1978년 12월 창간된 지하 간행물 《今天》의 편집자를 맡았다. 1985년 여권을 발급받은 후, 외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자주 참석하던 北島는 1989년 베를린에서 '6·4 천안문 사건'을 집하고는 베를린, 오슬로, 스톡홀름 등을 떠도는 망명생활을 시작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연구 논문은 중국보다 외국에서 더 활발하다. 그의 최초 시집은 1983년 Bonnie S. McDougall이 편역한 《Notes From the City of the sun》으로 중국보다 3년 먼저 미국에서 출판되었고, 1986년에 중국에서 《北島詩選》이, 1988년에는 대만에서 《北島詩集》이 출간되었다. 1989년 망명 후에 나온 시집으로 1991년 미국에서 출판된 《Old snow》, 1991년과 1992년 사이에 쓴 《走廊》(비정식 출간)과 이 두 권을 합권하여 1993년 홍콩에서 출판된 《在天涯》 등이 있다.

벨상 후보, 저항 시인, 망명 시인, 몽롱시인 등등 일 것이다. 北島라는 필명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북극에 생긴 섬, 그 속에서 고독하고 비장한 결심이 보이고, 그것은 속스럽게 흥청거리는 세상과 멀리 떨어지겠다는 의미”²⁾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필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文革이 종결된 이후인 197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다수의 시들 속에서 과감한 시어들과 상징들을 이용하여 어두운 중국의 현실과 지식인으로서의 추구를 문학적 생애와 현실적 생애 속에서 동시에 체현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를 5·4 시기의 反傳統主義를 잇는 新時期 이래의 대표적인 당대 시인으로, 그리고 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던 몽롱시인들 중의 원로로서 자리 매김 짓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제 北島의 시 세계에 조금씩 다가가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그에게 있어 시와 시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시인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관해 쓴 詩論적 성격을 갖는 그의 글들 몇 편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견지하고 있는 시인의 임무가 어떻게 시들 속에서 투사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詩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현재를 중심으로 한 과거와 미래에 관한 사유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의 200수에 가까운 수많은 시와 지금도 계속 창작되고 있는 그의 시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무리이기 때문에, 그의 詩 중에 이 같은 시간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몇 편의 시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2. 北島의 詩論과 시인에 관한 사유

北島의 시와 시인에 관한 사유를 살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른 시인들과 같이 詩論의 성격을 갖고 있는 문장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문장 중에 시에 관한 詩論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문장인

2) 허세욱, <北島>, 《中國現代詩研究》, 서울: 명문당, 1992, p.462.

<시에 관하여 關於詩>(1981)와 더불어, 北島가 자신의 본명인 趙振開라는 이름으로 1979년 《今天》에 발표한 중편소설 <파도 波動> 속의 여주인공 샤오 링의 입을 빌어 드러나는 北島의 철학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詩 중의 하나인 <끝이냐 시작이냐 結局或開始>를 통해 그의 시와 시인에 대한 사유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인은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자기만의 세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세계, 올바른 세계, 정의롭고 인간다운 세계를.

세상에는 많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진실들이 서로 모순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진실이 존재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시인들 서로간에 대화·이해·인내·배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시는 형식에 있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록 은유, 상징, 공감각, 시각의 전이, 시·공간의 적절한 연결 등과 같은 기법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이전의 진부한 기교들로는 결코 충분치가 않습니다. 제 시에서 저는 필름 몽타주의 기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병치된 이미지들을 창조하여 아주 빨리 연속 시킴으로써 단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공백을 독자들의 상상력으로 메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시의 수용력, 그 잠재의식과 순간 인상들의 포착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민 정서”란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시에다 새기려 하는 도장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 정서의 반영과 발굴이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임무를 과대 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시인은 온갖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할 수 있는 뜻있는 작품의 창조에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이 모든 고난들은 세월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항상 옳습니다. (北島, <시에 관하여 關於詩>, 1981)

너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가? 이 말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제기하고 대담해야만 하는 질문이다. 아마 추구란 말이 우리 세대를 요약하는 단어로 벌써 정립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죽음도, 침묵도, 어떠한 고정 관념에의 복종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비록 높다란 벽과 끝없는 산과 드넓은 강이 우리를 갈라놓아, 개인 하나하나가 몸부림치고 머뭇거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지쳤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견안자, 신념과 힘은 영원하다.(趙振開(北島), <파도 波動>, 《今天》 4-6호, 1979.6-10.)

……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갈망한다. 내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 속에서/ 늘 평온한 황혼을 보내기를/ 요람의 흔들림 속에서/ 아기의 첫웃음을 기다리고/ 팔발과 낙엽 위에서/ 진지한 눈빛마다/ 생활의 시를 쓰는/ 이런 평범한 희망조차/ 지금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바람의 모든 대가가 되었다……3)(北島, <끝이나 시작이나 結局或開始>)

첫 번째 문장을 꼼꼼히 읽다보면, 그에게 있어서 시란 우선 “진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진실”은 결코 시인 혼자만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진실”이나 “다양한 국민 정서의 반영과 발굴”이어야 한다는 점을 그는 명확히 천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인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세계 또한 구축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시란 ‘보편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닐 것이다. 따라서, 시(문학 작품)를 창작한다는 것은 곧 “작가의 의식과 언어와의 싸움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작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비평을 행하는” 행위라고 잠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시인이 정립하고자 하는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가? 그의 말을 빌면, “하나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세계, 올바른 세계, 정의롭고 인간다운 세계”이다. 이는 세 번째 문장의 “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갈망한다, 내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 속에서/ 늘 평온한 황혼을 보내기를”이라는 문장과 연결된다. 그에게 있어 현실의 세계는 이러한 인간다운 세계, 사랑이 넘치는 세계, 평온한 황혼을 보낼 수 있는 이상적 세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시인은 그 고통을 통하여 이미 있는 사실의 세계와 그것이 표방하는 감정의 의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결국 인간과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세계가不在의 세계에 불과한 것임을 증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창조적 충동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4). 따라서, 시인에게 있어서 “추구”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러한 “추구”를 추동하는 것은 “영원한 신념과 힘”에 대한 믿음이다. 이러한 “추구” 때문에 시인은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인은 온갖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달할 수 있는 뜻있는 작품의 창조에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사유는 곧 지

3) ……我是人/ 我需要愛/ 我渴望在情人的眼睛里/ 度過每個寧靜的黃昏/ 在搖籃的晃動中/ 等待着兒子第一聲呼喚/ 在草地和落葉上/ 在每一道真摯的日光上/ 我寫下生活的詩/ 這普普通通的願望/ 如今成了做人的全部代價 …… (北島, <結局或開始>)

4) 정현중·김주연·유평근 편, 《시의 이해》, 민음사, 1995, p.19.

식인이 지녀야 할 정신과 지식인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찍이 사이드는 지식인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지 않았는가. “지성인의 조건은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비판하는 비판정신이다. ……지식인은 언제나 자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말하고, 절대로 권력에 흡수 고용되지 않고, 언제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어떤 권력이나 권위라도 그들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⁵⁾임을.

이러한 시와 시인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시인(더 나아가 문학가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시의 형식에 관한 견해로 확장된다. 이렇듯 시는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시가 말하고 있는 “진실”들은 단선적이고 하나의 정답만이 존재하는 “진실”은 아니다.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실”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진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인정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는 시인들의 대화와 이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시는 형식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을 통해 시의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형식면에서 “필름 몽타주의 기법”을 채용하고, “병치된 이미지들을 창조하여 아주 빨리 연속시킴으로써 단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공백을 독자들의 상상력으로 메우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시의 수용력, 그 잠재의식과 순간 인상들의 포착”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단순히 내용적인 면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서도 시가 시에게끔 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렇듯 그는 상징주의적이고 모더니즘적인 수법들을 채용함으로써 ‘시의 예술성’에 대한 천착 또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좁게 본다면 몽롱과 시인들에 대한 기존 비평가들의 태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그리고 넓게 본다면 시의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마리 도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인의 詩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北島의 시 속에서 보여지는 강인한 저항 정신과 비판 정신은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강인한 휴머니즘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의 시 속의 언어·이미지·구조 등에서 보여지는 독창성과 실험성은 이러한 그의 시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에드워드 사이드, 전신옥·서봉옥 옮김,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창, 1996, p.8 참조.

3. 北島 시에 나타난 시간성

2절에서는 北島의 시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그에게 있어 시인이란, 김수영의 말을 빌려 쓴다면 “은땀으로 시를 밀고 가는” 자로서, 일종의 현재의 어지러움과 더 나은 미래를 간취하기 위해 부르짖는 예언가적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 파악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北島의 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분석의 편의를 위해, 그의 시에서 가장 많은 드러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사유를 몇 편의 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의 시에 나타난 시간성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원형적인 형태를 지닌 시가 바로 그가 《今天》 창간호(1978)에 발표한 <회답 回答>이라 할 수 있다.

卑鄙是卑鄙者的通行證,
高尚是高尚者的墓志銘,
看吧, 在那鍍金的天空中,
飄滿了死者彎曲的倒影。

冰川紀過去了,
爲甚麼到處都是冰凌?
好望角發現了,
爲甚麼死海里千帆相競?

我來到這個世界上,
只帶着紙、繩索和身影,
爲了在審判前,
宣讀那些被判決的聲音。

告訴你吧, 世界
我—不—相—信!
縱使你腳下有一千名挑戰者,
那就把我算作第一千零一名。

我不相信天是藍的,
我不相信雷的回聲,

비열은 비열한 자들의 통행증이고
고상은 고상한 자들의 묘지명이다
보라, 저 금테를 두른 하늘에
죽은 자의 일그러져 거꾸로 선 그림자들이 가득 차 나부끼는 것을

빙하기는 지나갔건만
왜 도처에 얼음뿐인가?
희망봉도 발견되었건만
왜 死海에는 온갖 배들이 앞을 다투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단지 종이·새끼줄·그림자를 가져와
심판에 앞서
판결의 목소릴 선언하기 위해서였단가.

너에게 알리노니, 세상아
난—민—지—않—아!
설령 너의 발 밑에 천 명의 도전자가 있더라도
나를 천한 번째로 삼아다오

난 하늘이 푸르다고 믿지 않는다
난 천둥의 메아리를 믿지 않는다

我不相信夢是假的,	난 꿈이 거짓임을 믿지 않는다
我不相信死無報應.	난 죽으면 보복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如果海洋注定要決堤,	만약 바다가 제방을 터뜨릴 운명이라면
就讓所有的苦水都注入我心中,	온갖 쓴 물을 내 마음 속으로 쏟아 들게 하리다
如果陸地注定要上升,	만약 육지가 솟아오를 운명이라면
就讓人類重新選擇生存的峰頂.	인류가 생존을 위한 봉우리를 다시 한번 선택케 하리다
新的轉機和閃閃星斗,	새로운 轉機와 번쩍이는 별들이
正在綴滿沒有遮攔的天空.	바야흐로 막힘 없는 하늘을 수놓고 있다
那是五千年的象形文字,	그것들은 오천 년의 상형문자이고
那是未來人們凝視的眼睛.	미래의 사람들이 응시하는 눈동자들이다

1연에서 北島는 “비열한 자들”과 “고상한 자들”을 대비시키면서 문혁 기간에 대한 상징적인 反思(말 그대로 되돌아보고 다시 생각한다. 즉 과거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현재에 대한 고민을 통한 희망적인 미래를 견인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를 행하고 있다. 文革이라는 기간 동안 생존을 위한 면죄부로 비열하게 행동해야만 했던 중국 사람들에게 대한 반성을 통해 “비열”과 “고상”으로 상징된 사람들의 거짓 껍데기를 비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죽은 자의 일그러져 거꾸로 선 그림자들”의 모습 속에서 文革에 의해 먹혀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食人”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읽어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슴속에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채 살아가고 있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2연에서 “빙하기”로 상징되는 文革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추구했던 가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읽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얼음”과 “사해”라는 폐허를 딛고 “희망봉”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지식인들의 고통스러운 출발과 추구를 보여주고 있다. 3연에서 시인 자신의 실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즉, 文革을 심판하면서 지난날의 비인간화가 끝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무기력함 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읽어낼 수 있으며, 4연에서 이러한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의문을 통해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난 너를 믿지 않아”라는 말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위해서는 강렬한 저항 의식이 바탕이 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만이 해결책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5연에서의 일상적인 자연 내지는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부정을 통해 강렬한 저항의식으로 발전되며, 이러한 저항의식은

마지막 연에서 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러한 희망을 견인하려는 시인의 의식,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는 휴머니즘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인의 의식은 “회답”이라는 제목과 교묘하게 맞물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과 대답, 文革 이후 신지식인들의 자아에 대한 천착, 그리고 자아와 사회의 갈등과 극복으로까지 확대되어 나아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앞으로의 분석에서 살펴보려는 과거/현재/미래에 관한 관점들을 나타내는 시들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인의 과거/현재/미래에 관한 몇 수의 시들을 통해 시인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과거”의 시간성: 역사에 대한 反思와 참회의식

文革 종결 이후에 등장한 新時期 문학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文革에 대한 역사적 상처를 보여주는 ‘傷痕 문학’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反思’를 보여주는 ‘反思 문학’, 그리고 새로운 뿌리 찾기의 일환인 ‘尋根 문학’의 성격이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北島의 시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의 시 속에서 보여지는 역사에 대한 ‘反思’는 크게 두 사건과 얽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 시절 직접 경험했던 10년 동안의 ‘文革’과 망명 시기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6·4 천안문 사건’, 이 두 사건을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먼저, 北島시 속에 나타나는 ‘文革’에 관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北島는 북경 제4 중학교 재학 당시, 文革의 열기에 휩싸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홍위병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구습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이상을 건설한다는 명목 하에 시행되었던 ‘홍위병 운동’에는 객관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없이 행해졌으며, 이에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았다. 따라서, 어린 시절 홍위병 운동에 잠시 참가한 적이 있던 작가는 그 시절에 대한 역사적 반사 작업과 동시에 자신 또한 그러한 광란의 분위기의 현장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는 ‘공범의식’을 보여준다.

履曆

我曾正步走過廣場
 剃光腦袋
 爲了更好地尋找太陽
 卻在癡狂的季節里
 轉了向, 隔着柵欄
 會見那些表情冷漠的山羊
 直到從鹽城地似的
 白紙上看到理想
 我弓起了脊背
 自以爲找到了表達真理的
 唯一方式, 如同
 烘烤着的魚夢見海洋
 萬歲! 我只他媽喊了一聲
 胡子就長出來了
 糾纏着, 象無數個世紀
 我不得不和曆史作戰
 并用刀子與偶像們
 結成親眷, 到不是爲了應付
 那從蠅眼中分裂的世界
 在爭吵不休的書堆里
 我們安然平分了
 倒賣每一顆星星的小錢
 一夜之間, 我賭輸了
 腰帶, 又赤條條地回到世上
 點着無聲的煙卷
 是給這午夜致命的一槍
 當天地翻轉過來
 我被倒掛在
 一棵墩布似的老樹上
 眺望

이력서

일찍이 나는 광장을 걸었다
 짝짝 깎은 머리로
 태양을 보다 잘 찾기 위하여
 그러나 미쳐버린 계절 속에서
 방향을 바꾸었다, 울타리 너머
 추위에 떠는 염소들을 보고는
 알칼리성 토지와 같은
 백지 위에서 이상을 보기 전까지
 나는 등뼈를 구부린 채
 진리를 표현한
 유일한 방법을 찾았다고 믿고 있었다, 마치
 불에 구워진 물고기가 바다를 꿈꾸는 것처럼
 만세! 나는 한 번만 외쳤다, 제기탈!
 그러자 수염이 자라기 시작해
 뒤엉켰다, 마치 셀 수 없는 세기들처럼
 나는 부득불 역사와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칼로 우상들과
 가족을 결성한 것은, 결코 대항키 위함이 아니었다
 파리 눈 속의 분열된 그 세계와
 언쟁이 끊이지 않는 책 더미 속에서
 차분하게 우리는 똑같은 몫을 받았다
 별을 하나 하나 팔아서 마련한 적은 돈이 었다
 하룻밤 새, 나는 도박으로 날렸다
 내 허리띠, 그리고 발가벗겨진 채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다
 소리 없는 담배에 불을 붙인 것은
 한밤에 죽음을 불러온 총이었다
 하늘과 땅이 자리바꿈 할 때
 나는 대걸레 같은 한 그루 고목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시는 北島의 <이력서 履曆>이라는 시이다. 제목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시인
 의 자전적인 과거에 대한 반성이 시적 화자 “나”를 통해 물씬 풍기고 있다. 1행에서
 3행까지의 구절은 직접적으로 그의 文革에 대한 흥위병으로서의 참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의 “태양”은 당시의 지도자였던 毛澤東으로도, 아니면 막연히 찬란한 미래의 꿈으로 상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행동이 “미처버린 계절”로 상징되는 광적인 집단적 분위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 혁명적인 백지(중국인은 한 장의 백지와 같다는 모택동의 생각) 위에서 이상을 찾았다고 믿으며 노동을 위하여 등뼈를 구부린다. 이는 그의 河北과 北京에서의 강제노동과 자연히 중첩되어 진다. 물론 “시적 화자”와 작가를 동일시하지 않더라도 당시 北島와 동년배 사람들의 경험들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마치 뜨거운 불에 구워지고 있는 물고기가 바다를 꿈꾸는 것처럼 부질없는 행위일 따름이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이는 “자라나는 수업”에서 알 수 있다) “나”는 자신의 이상이 그릇됨을 깨닫게 되고, 과거에 대한 혼란은 엄청나 시인은 부득이 “역사”와 한판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세계는 파리처럼 분열되었고, 그 무질서 속에서 지성의 상징이었던 책은 쓸모 없는 길잡이로 전락하고, 모든 이들의 희망이었던 별조차도 하룻밤 도박을 위한 밑천으로 쓰인다. 이처럼 기존의 가치는 땅으로 떨어졌다. 결국 “나”는 옷마저도 도박으로 날리고 별거벗은 상태로 세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제 뒤집힌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 고목에 거꾸로 매달려 “먼 곳”을 바라본다.

이러한 시적 화자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결코 긍정적인 기억이 아니다. ‘文革’이라는 역사의 굴레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모든 것이 허무한, 모든 것이 부정되어야 하는 세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를 ‘文革’이라는 비분의 역사를 응집점으로 삼은 농축된 역사 필름으로, 한 시대 인간들의 이상·희망·실망·비분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는 王干的 분석⁶⁾은 설득력을 지닌다. 암울한 현실과 이상의 좌표 속에서 시인은 기대와 좌절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인의 암담함은 앞에서 살펴본 그의 시인에 대한 상과 결합하면서 계속된 “추구”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앞의 시가 시인의 ‘과거’에 대한 총체적 부정을 수반하면서 文革을 반성하고 있다면, <사랑 이야기 愛情故事>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6) 王干, <歷史·瞬間·人間—論北島的詩>, 《文學評論》, 1986. 3, p.55 참조.

愛情故事

畢竟, 只有一個世界
爲我們準備了成熟的夏天
我們卻按成年人的規則
繼續着孩子的游戲
不在乎倒在路旁的人
也不在乎擱淺的船

然而, 造福于戀人的陽光
也在勞動者的脊背上
鋪下漆黑而疲倦的夜晚
即使在約會的小路上
也會有仇人的目光相遇時
降落的冰霜

這不再是一個簡單的故事
在這個故事了
有你我, 還有很多人

사랑 이야기

결국, 오직 하나의 세계만 있었다
우리를 위해 성숙한 여름을 준비한 것은
우리는 오히려 어른들의 규칙에 따라
어린애 같은 놀이를 계속했다
길가로 자빠지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으며
좌초되는 배들도 개의치 않으며

그렇지만, 연인들을 축복했던 햇살은
노동자들의 등위에서
칠혹 같고 피곤한 밤을 던지고 있다
설사 만나기로 약속했던 오솔길에서
마주치더라도 원수 같은 눈빛 속에
얼음과 서리만 떨어질 뿐

이제 그저 간단한 이야기로 치부될 수 없다
이 이야기 속에는
너와 나,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기에

2연의 “연인들을 축복했던 햇살”에서 상상되듯이, 文革이 갓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앞으로 건설될 미래의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직 하나의 세계”, 즉 전체주의적 질서 체계를 만들려는 “어른들의 규칙에 따라” “어린애 같은 놀이를 계속했던” 어린 홍위병들은 “길가로 자빠지는 사람들”이나 “좌초되는 배”로 연상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러한 놀이를 계속한다. 하지만 그 결과 나타난 것은 그렇게 믿었던 햇살이 안겨준 “칠혹 같고 어두운 밤”⁷⁾일 뿐이다.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 또한 완전히 단절되어 “원수 같은 눈빛”만이 교환되는 냉랭한 분위기만 남아있다. 이렇듯 야기된 절망적 현실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

7) 北島의 시적 이미지들 가운데 ‘밤’과 ‘황혼’의 이미지가 대부분의 시들에서 나타난다. 이는 현실 세계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밤’이기 때문에 햇살이 빛나는 ‘아침’이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드러난다. 하지만 이 같은 ‘아침’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추구의 과정이 있어야 함 또한 그의 시에 잘 드러나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이 같은 밤과 황혼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겠지만, 이는 과거/현재(오늘)/미래라고 하는 통시적인 시간개념과 더불어 ‘하루’라는 공시적인 시간 개념을 이루는 주요 이미지를 이룬다. 이러한 시간성에 관한 연구는 이경하, <북도시에 나타난 시간성 연구>, 《중국어문학지》 4권 1호를 참조할 수 있다.

다. 그 속에는 “너와 너,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듯 과거의 망가진 역사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시인 자신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도 역시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낸 가해자(홍위병으로서의 경험) 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觸電

我會和一個無形的人
握手，一聲慘叫
我的手被燙傷
留下了烙印
當我和那些有形的人
握手，一聲慘叫
它們的手被燙傷
留下了烙印
我不敢再和別人握手
總把手藏在背後
可當我祈禱
上蒼，雙手合十
一聲慘叫
在我的內心深處
留下了烙印

감전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악수를 한 적이 있었다. 외마디 비명과
내 손은 화상을 입었고
낙인이 남겨졌다
내가 보이는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는, 외마디 비명과
그들의 손이 화상을 입었고
낙인이 남겨졌다
난 다시는 감히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할 수 없었다
항상 내 손을 등뒤로 감추어 놓을 뿐
그러나 내가 기도를 올릴 때
하늘에, 두 손 모아
외마디 비명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낙인을 남겨놓는다

이 시 속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과 악수를 한 후 화상을 입는다. 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억누르는 동시에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그러한 전체주의적 질서나 좁은 의미에서는 文革의 열광적인 분위기 정도로 상정할 수 있겠다. 이렇듯 상처 입은 “나” 또한 “보이는 사람”들에게 감전시켜 화상을 입히는 존재가 되었다. 말하자면 전체주의적 질서의 피해자였던 “내”가 이제는 가해자의 입장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시는 누구와도 악수를 할 수 없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의미를 지니는 기도를 올릴 때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 낙인이 남게 되는 것이다. ‘낙인’이란 몸에 남아있는 강한 흔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아

있는 낙인은 곧 마음 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상처 및 참회의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앞의 시들 보다도 더욱 직접적으로 시인의 文革에 대한 '공범의식'과 참회의식⁸⁾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文革에 대한 역사적인 反思를 중심으로 한 시들을 살펴보았다면, 앞으로 살펴볼 시들은 작가가 베를린에 있을 때 간접적으로 접한 '6·4 천안문 사건'이라는 또 다른 축에 대한 역사적인 反思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鍾聲

종소리

鍾聲深入秋天的腹地

종소리는 가을의 대지로 깊이 들어가고

裙子紛紛落在樹上

치마는紛紛히 나무 위로 떨어져

取悅着天空

하늘을 기쁘게 한다

我看見蘋果腐爛的過程

나는 사과가 부패되는 과정을 보았다

帶暴力傾向的孩子們

폭력성을 지닌 아이들이

象黑煙一樣升起

검은 연기처럼 떠오르고

房瓦潮濕

기와는 젖어든다

十里風暴有了不倦的主人

10리의 폭풍엔 피곤을 모르는 주인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시들이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면, 이 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있다. 이는 '6·4 천안문 사건'이 그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 아니므로, 文革을 소재로 하는 시와는 달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 속에서 종소리와 폭력성을 지닌 아이들이 대척점에 놓여서 서술된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종소리가 긍정적 이미지를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패되는 사과'는 중국 사회의 부패하고 추악한 현실을, 그리고 "폭력성을 지닌 아이들"은 앞서의 시의 홍위병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살인적인 무기로 시위를 진압하던 군인들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8) 陳思和에 의하면, 반성이란 이미 행해진 것을 새롭게 검토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성적 색채가 농후한 것이라면, 참회는 이미 야기된 잘못이나 죄악에 대한 심각한 인식으로, 강렬한 정서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감정의 고통과 영혼의 내재적 시달림을 수반하며, 자신의 어리석고 졸렬한 악행에 대한 승인과 자기 질책이 뒤따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陳思和, 한국외대 중국 현대문학연구회 옮김, 《20세기 중국문학의 이해》, 1995, pp.215-216 참조) 따라서, 北島의 文革을 소재로 한 시들 속에는 文革에 대한 이성적인 反思와 더불어 작가 개인의 정서적인 참회의식 또한 함께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피곤을 모르는 주인”으로 상징되는 ‘전체주의 질서’가 여전히 버티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시이다.

.....

不是生者是死者

在末日般殷紅的天空下

結絆而行

.....

산 자가 아닌 죽은 자들이

미래처럼 검붉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길을 떠나네

이 시는 <애도—6·4 희생자를 위해 悼亡—爲六·四受難者而作>이라는 시이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6·4 희생자들을 위해 지은 이 시 속에서, 시인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 죽어 함께 길을 떠남을 슬퍼하고 있다. 이들의 희생은 결코 밝지 않는 ‘검붉은 하늘’로 상징된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꾸기 위한 사람들의 희생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文革에 대한 反思가 역사적 反思와 시인 자신의 참회의식과 연결되어 주관적 색채가 강하다면, ‘6·4 천안문 사건’은 좀더 객관적인 反思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와 미래의 시간성

이상에서 시인이 발굴해낸 기억은 과거 사건에 대한 단순한 회고가 아니라 현재의 오류의 근원을 추적하는 비판의 힘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내일이라는 시간 이미지 속에서 시인의 현재/미래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北島시에 있어서 현재를 나타내는 ‘오늘’의 의미는 어제/내일로 표현되는 과거/미래보다 훨씬 큰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그가 편집인을 맡았던 간행물 《今天》의 창간사에 나타난다. 1979년 12월 《今天》 창간사에서 北島를 비롯한 몽룡시파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으며, 미래는 아직 아득한 지평 저편에 있다. 우리 세대를 말할 것 같으면, 단지 오늘,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⁹⁾. 이러한 사유는

9) 이경하, <북도시에 나타난 시간성 연구>, 《중국어문학지》 4권 1호, 1997, pp.325-326.

실존주의자들의 사유와 유사하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아득한 지평 너머에 있으므로, 그에게 있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로 상징되는 현재이다. 철저히 현재에 입각한 현실을 정면으로 부딪치는 고통을 수반해야 비로소 이상적인 미래를 간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企掇'적 행위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인간답게끔 되는 것이다.

.....

明天, 不	내일은, 안 돼
明天不在夜的那邊	내일은 밤의 저 편에 있지 않아
誰期待, 誰就是罪人	희망을 지닌 자는 누구나 죄인
而夜裏發生的故事	그러니 밤새 일어난 이야기는
就讓它在夜裏結束吧	그 밤 안에 끝내주게나

이 시는 <내일은, 안 돼 明天, 不>라는 시의 2연이다. 여기에서 내일로 상징되는 밝은 미래는 결코 밤이 지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막연한 희망을 지니는 자는 곧 죄인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밤새 일어난 이야기”는 “그 밤 안에 끝내주게나”라는 말은 현재의 현실적 상황을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부딪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모습을 미래에까지 물려줄 수 없다라는 시인의 절박함 또한 묻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從鏡中我們看見了	거울 속에서 우리는
久遠的事情:	아주 먼 과거의 일을 보았다
碑林, 書卓焚燒後的	碑林, 책상이 불타버린 후
殘存的腿	남아 있는 책상다리
空中未干的墨迹	공중의 아직 마르지 않은 묵 자국
.....	
向上的未來之路	위로 향한 미래의 길은
是巨型滑梯	거대한 미끄럼틀
從聖者的位置上	성자의 지위로부터
經歷狂喜	미칠 듯한 기쁨을 겪고

我們從鏡子裏生下來

우리는 거울 안에서부터 태어난다

.....

이 시는 <양면 거울 雙面鏡>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원래 거울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비춰주는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거울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우선 대상의 모습을 비춰보는 행위를 연상할 수 있으며, 이 대상은 자신의 내면일 수도,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 또한 필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 시의 제목인 '양면 거울'은 원래 양쪽을 모두 비추고 있는 거울이다. 이러한 거울의 이미지를 시간과 연결시켜 본다면 과거와 미래라는 양 방향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은 곧 현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인은 현재라는 거울 속에 비춰진 암울한 과거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만큼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마지막 부분이다. "우리는 거울 안에서부터 태어난다"라는 부분에서, 거울이 현재를 상징한다고 상정하면, 현재라는 것이 있어야 미래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렇듯 희망찬 미래를 낳기 위해서는 곧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듯 두 시에서 지금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현재적 시간은 역시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에의 충실함이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이상과 같이 소략하게나마 北島라는 시인이 지니고 있는 시에 관한 관점과 그의 시 분석을 통해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이 그에게 지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그는 "보편적 특수성"을 획득해야 함이 시인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며, 예언가로서의 시인의 임무 또한 잊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의 내용과 형식을 아울러 중시하여, 시적 진실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잠시 모자라는 대로 지식인을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통한 자기 갱신과 사회비판을 통한 현실 비판”이라는 비판적 사유를 진행하는 자라 정의해보자. 이 때의 사유는 양날검의 사유이다. 즉 칼의 방향성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내부로, 다른 한편으로는 밖으로 확장되며 끊임없는 반성과 변혁을 촉구하게끔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를 소재로 하는 시들 속에서 이와 같은 현실사회에 대한 反思와 더불어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원죄의식과 참회의식을 통해 시인은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상식화되고 있는 과거→현재→미래라고 하는 직선적 시간의식에서 벗어나, 현재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 모두를 직시하고 현실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나온 미래를 끌어오려는 시인의 의지를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끝으로 北島시의 매력은 쉬운 언어와 쉬운 상징 이미지들로 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의 시를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혹여 그의 시를 오독함으로써 작가의 시정신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나 하는 불안감과 더불어 작품은 독자의 관점에서 재창작 내지 재해석될 수 있다는 자기 변명을 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北島, 《北島詩選》, (廣東: 新世紀出版社, 1986.)
 ——, 《北島詩集》, (臺北: 新地出版社, 1988.)
 ——, 《在天涯》, Hong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Bonnie S. Mcdougall trans, *Notes from the City of the Sun: Poems by Bei Dao*, Ithaca, New York: China-Japan Program Cornell University, 1983.
 ——, Bonnie S. Mcdougall trans, *The August Sleepwalker*,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1990.
 ——, Bonnie S. Mcdougall trans, *Waves*,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1990.
 ——, Bonnie S. Mcdougall and Chen Maiping trans, *Old Snow*,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1991.

- , David Hinton with Yanbing Chen trans, *Landscape Over Zero*,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1996.
- , Eliot Weinberger and Iona Man-Cheong trans, *Unlock*, New York: New Directions Book, 2000.
- 楊煉·江河·北島·舒婷·顧城, 《五人詩選》, (北京: 作家出版社, 1986.)
- 양태은, <北島 소개>, 《자료와 소식》 4,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1994.)
- 에드워드 사이드, 전신욱·서봉욱 옮김, 《권력과 지성인》, (도서출판 창, 1996.)
- 이경하, 《북도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중문과 석사학위논문, 1996.
- , <北島詩에 나타난 時間性 研究>, 《중국어문학지》 4권 1호, 1997.
- 정우광 編譯, 《빼이따오의 시와 시론》, (서울: 고려원, 1995.)
- , <과거, 현재 그리고 절망감—베이다오의 시세계>, 《현대시사상》 26, (서울:고려원, 1996.)
- , <北島의 近作詩—그 전통성과 현대성>, 《石堂論叢》,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2001.7.
- 정현중·김주연·유평근 편, 《시의 이해》, (서울: 민음사, 1995.)
- 허세욱, <北島>, 《中國現代詩研究》, (서울: 명문당, 1992.)
- 歐陽江河, <論北島近作《舊地》>, 《今天》 3권 30호, Hong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楊小濱, <今天的“今天派”詩歌—論北島·多多·嚴力·楊煉的海外詩作>, 《今天》 4권 31호, Hongko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王 十, <歷史·瞬間·人間—論北島的詩>, 《文學評論》, 1986.3.
- 劉玉珂, <中國新時期詩歌新潮試論—對《今天詩派》的綜合考察>, 《中國現代文學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會, 1995.12.
- 陳紹偉, <重評北島>, 《中國現當代文學研究》, 中國人民大學 複印報刊資料 1991. 12.
- Bonnie S. Mcdougall, *Bei Dao's Poetry: Revelation & Communication*, Modern Chinese Literature, 1995.5.
- 是永曉駿 <北島詩論 노트>, 《野草》 40-41號, (大阪: 中國文藝研究會), 1987-1988.
- 宗誠·曉森, 藤井宏譯, <受難者の冷たい塑像—《北島詩選》及び長詩《白日夢》を論ず>, 《野草》 40號, 大阪: 中國文藝研究會, 1987.
- www. lingshida.com/ 北島詩選.